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31-000002299532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르별선호도, 매체의존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중심으로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LIU JUAN

신 문 방 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르별선호도, 매체의존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남 인 용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LIU JUAN

LIU JUAN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위 원 장　철 학 박 사　김영환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남인용 (인)

위　　원　철 학 박 사　김무규 (인)

- 목 차 -

Ⅰ. 문제제기 ····· 1

Ⅱ. 이론적 논의 ····· 4

1. 장르별 선호도, 매체의존도와 장르별 시청량 간의 관계 ····· 4

가. 시청행위에 관한 연구 ····· 4

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장르선호 ····· 6

다. 매체의존 이론 ····· 8

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의 시청현황 ····· 12

(1) 시청동기 ····· 12

(2) 시청현황 ····· 13

마.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별선호도, 매체의존도와 그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 간의 관계 ····· 15

2.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18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18

나. 신체상불만족 ····· 20

(1) 신체상과 신체상불만족 ····· 20

(2) 신체상의 영향요인 ····· 22

다. 자아존중감 ····· 25

(1) 자아존중감의 정의 ····· 25
(2)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 ····· 26
라.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 불만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 29

Ⅲ. 연구문제 및 가설 ····· 32

Ⅳ. 연구방법 ····· 34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34
2. 측정도구 ····· 34
가. 시청자 일반적 변인 ····· 34
나. 장르별 선호도 ····· 35
다. 매체의존도 ····· 35
라. 시청량 ····· 37
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38
바. 신체상불만족 ····· 39
사. 자아존중감 ····· 41
3. 자료처리 및 분석 ····· 42

Ⅴ. 연구결과 ····· 44
1. 기술통계 ····· 44
2. 신뢰도분석 ····· 46

3. 상관관계 분석 ····· 47
4. 가설검정 ····· 49

Ⅵ. 결론 및 제안 ····· 60

참고문헌 ····· 63

- 표 차례 -

<표 1> 매체 의존도 측정 문항 ····· 37

<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 문항 ····· 39

<표 3> 신체상 불만족 측정 문항 ····· 40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3

<표 5>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 ····· 45

<표 6> 신뢰도 분석 ····· 46

<표 7>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 48

<표 8>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 치는 영향 ····· 49

<표 9>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전체) ····· 50

<표 10> 인터넷 및 텔레비전 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 51

<표 11> 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 51

<표 12>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2

<표 13>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전체) ····· 53

<표 14>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 54

<표 15>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전체) ····· 55

<표 16>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56

<표 17>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전체) ····· 56

<표 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 57

<표 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58

<표 20> 신체상불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59

The influence of Watching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on the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Genre Preference, Media Dependency,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s the center

LIU JUA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researches the influence of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on the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by analysing their Preferences of Korean television programs, Media Dependency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The main result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preferences of Korean news, movies and educational programs of Chinese students do not affect the ratings of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while the preferences of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boost the ratings. Second, the dependence of the internet and TV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ratings of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Third, watching Korean TV drama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xert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f Chinese students. Forth, watching Korean entertainment programs promotes the dissatisfaction of their body images of Chinese students, which are not affected by the watching of Korean TV dramas. Fifth,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self-esteem of Chinese students.

By the way, this thesis found that the body image dis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have a reverse effect on their self-esteem, which is meaningful.

I. 문제제기

1992년 중한 정식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중국과 한국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세기 90년대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인기를 받게 된 현상을 일컫는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한류의 커다란 영향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수많은 인기를 받고 중국소비시장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젊은 층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수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어 연수나 대학의 정규 과정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통틀어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광훈 · 박봉수, 2012).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으로 올 상황이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부[1] 2015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2015년 4월 1일 기준)에 의해 현재 재한 외국인 유학생 91,332명, 10년 전(2005년 22,256명)보다 4배 많았고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54,214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외국 유학생의 59.4%를 차지

1)한국교육부(http://www.moe.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유학 및 교원정보, 외국 학력인정 학교정보 > 번호 50.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한다(중국-59.4%, 베트남 -4.9%, 일본-3.8%, 몽골-3.4%, 미국-3.2%, 대만-2.2%, 기타-23.1%). 재한 외국인의 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유학생의 재한 생활 현황이 어떠할지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사실이다. 대학은 단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고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며, 대학생활은 수면과 식사와 같은 기초생활, 학습생활, 여가생활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여가생활은 대학생 문화를 이루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의 '여가' 는 본인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기쁨, 휴식 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지정한다. 배경호(2008)는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로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가 유학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가활동은 대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낯선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스트레스 풀기, 기분전환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의 여가생활에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등 위주의 한국프로그램의 시청행위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중의 하나다. 마사, 전범수(2012)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드라마 몰입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독특성, 한국 체류 기간, 드라마 장르 선호도 요인으로, 오락 프로그램 몰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독특성, 스타 출연, 오락 장르 성호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선남(2008)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TV 드라마 시청 동기는 재미추구동기, 시간보내기, 자기 확인동기 3가지요인이고 텔레비전에 대한 현실감 및 친근감 높은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드라마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유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현민, 박주연(2011)은 중국과

일본 대학생의 한류 드라마 시청 동기는 5가지 요인으로 ‘문화적 호기심’, ‘콘텐츠 우수성’, ‘문화적 유사성’, ‘배우매력도’, ‘관계적 요인’으로 나탔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양설(2010)은 중국유학생들은 정보획득 및 언어구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 TV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한국 TV프로그램 중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동기가 재미와 정보 획득, 진행자에 대한 선호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현재까지의 기준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의 시청동기,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한국 프로그램 시청량, 또한 시청 장르, 시청내용 등 시청행위가 그들 자신의 심리적, 행동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프로그램의 시청행위, 특히 그들이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의 시청이 그들의 심리적, 여기에서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향후 한국 유학생활 동안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논의

1. 장르별 선호도, 매체의존도와 장르별 시청량 간의 관계

가. 시청행위에 관한 연구

방송프로그램의 통합적 시청행위와 관련해 논의 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방송 시청행태 연구와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다매체 이용관련 연구들이다(강남준, 조성동, 2011). 우선, 방송 시청행위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주제로 시청을 결정하는 선행적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에서부터 시청자의 선호나 개인적인 요인, 구조적인 차원의 제약(structure variable) 등을 논의하는 주제 등이 있다. 이에 더해, 텔레비전 시청패턴을 기반으로 시청흐름 및 편성전략의 인접효과, 반복시청, 시청충성도 및 충실도 등을 논의하는 연구들도 맥을 함께한다. 또, 다채널 환경의 시청행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레퍼토리 (repertoire) 형성과 오디언스(audience)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분극화(polarization), 집중화(concentration), 세분화(segmentation) 등의 연구들도 방송시청행태 연구에서 중심적인 논의로 이어져 왔다.

시청자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과정에 대한 논의는 시청행위에 대한 논의에 따라 능동적 시청과 수동적 시청으로 나누어진다. 능동적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지만, 수동적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의 외적 요인에 의해 시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와 여러 가지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가?' '만약 선택적인 시청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준이 시청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인가?' (Gunter, 1985, p.94: 황성연, 2005, 재이용)하는 것이다. 시청행위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는 거시적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Webster, Lichty, 1991). 하나는 시청행위에 있어서 시청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 시청자의 요구(need), 선호(preference), 정신적 상태(mental status)에 집중하여 시청자의 내적 요구 및 동기와 프로그램 시청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또는 실험실적 상황에서 프로그램 노출을 예측하거나 시청행위가 일어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또는 축적된 시청자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청가능성(viewer availability) 또는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과 같은 구조적 변인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시청률, 시청흐름 유형, 채널 로열티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전자가 시청자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시청자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목적을 설문조사하거나, 정신적 상태를 조절하는 실험상황을 구축하고, 시청행위를 관찰 또는 설문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반면, 후자는 개별 시청자보다는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기계적으로 수집된 시청률 자료를 이용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 편성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Rosenstein, Grant, 1997).

연구중심과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시청행위를 분석하는 2가지 연구방향은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 중심 연구의 대표적 연구인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청행위를 시청자의 내재된 욕구가 구체화된 시청동기를 프로그램 간의 관계가 주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행위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

시키려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Rubin, 2002)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유형(type)의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적 시청'라는 것이다. 반면,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는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청행위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무선적(無選的)이고 확률적인 선택이라는 전제하에 시청행위를 프로그램에 노출할 가능성과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시청행위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호보다 시청가능성이나 편성특성 등의 내용외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는(Webster, Wakshlag,1983) 이른바 ' 수동적 시청'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이 능동적인 행위인지 수동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한혜경, 1999 ; 배진아, 2004), 특히 시청자는 먼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시청할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클라인(Klein)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의 2단계 모형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 두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장르선호

지난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졌다. 종합유선방송 (CATV)의 등장(1995), 인터넷이 상용화(90년대), IPTV(2008),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 이용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TV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바일 TV가 등장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삼성전자의 바다 등의 운영체재를 탑재해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위 '스마트 TV'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의 포스트 네트워크 시대는 지상파

네트워크의 힘이 줄어든 반면 시청자가 컴퓨터 스크린 혹은 이동 기기를 통해 다양한 소스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자기 구미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콘텐츠의 과다공급은 수용자들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 부족, 소비시간 제한, 비용문제, 티어링(tiering)에 따른 채널 접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강남준 · 조성동 2007). Webster(2007)는 다채널시대에 부족한 자원은 콘텐츠가 아니라 수용자의 채널에 대한 주목도라고 주장했다. 수용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채널을 소비하려면 다매체가 체공하는 모든 채널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게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용자는 수많은 채널에 편성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다매체 다채널 시대 수용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시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Webster는 Simon(1997) 가 주장한 “제한된 합리적 판단” 개념을 인용하여 다매체 다채널 시대 시청 선택은 시청결과 발생 하는 개인적 효용(utility)의 극대화(maximize) 가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 (satisfi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채널 선택행동에서는 “채널 레퍼토리(channel repertoires)”라는 형태다. 채널 레퍼토리는 제공되는 모든 채널에 대한 정보를 매번 일일이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시청 채널에 대한 인지적 복잡함을 줄여나가는 시청자의 의도적 선택 행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김은미 · 윤석민, 2003).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수용자는 편향적인 장르 이용의 가능성을 소유한다. 수용자들은 장르 및 프로그램유형 선호를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게 되고(Yuan & Webster, 2006), 이는 수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세분화, 분극화, (조성동 · 강남준,2008; Webster, 2005)와 집중화(Yim, 2002)를 초래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수용자 세분화 현상, 예들 들어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다양해져 모든 채널을 골고루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채널 당 평균 시청률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채널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자가 필요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 세분화가 발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자는 다채널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선택해서 광범위하게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프로그램만 시청하는 것(Webster, 1986)이 바로 시청 분극화 현상이다. 다채널 시대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인해 채널의 수평적 다양성(horizontal diversity)이 확보되어 집합적 수준에서 시청자 세분화 현상이 발생하지만, 개인 수준에서는 시청의 분극화가 발생해 프로그램 선택의 수직적 다양성(vertical diversity)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임정수, 2003). 이용 가능 매체나 채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보수적 태도로 채널이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장르에 대한 선호도 집중과 이에 따른 채널이나 방송콘텐츠에 대한 집중이 일반화된다(전범수, 2005). 또한 다매체 다채널이 수용자들에게는 계획적이거나 도구적인 소비의 대상이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익숙하고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행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윤석민, 1996; Youn, 1994).

다. 매체의존 이론

매체 의존 이론은 1976년 볼 로키치(S. Ball-Rokeach)와 드폴로(M. DeFleur)에 의하여 개발되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최초

의 이론은 매체효과 이론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수년 내에 사회학적 설명이 추가된 매체체계 의존이론(Media Systems Dependency Theory)으로 발전하였다(Ball-Rokeach, 1985). 매체 의존 이론을 크게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나누면 거시적인 매체체계 접근법하고 미시적인 매체체계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고 (1) 매체체계(media system)와 다른 사회체계들 간 관계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설명과(2) 수용자 개인과 그가 이용하는 매체 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설명을 포함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특정 대중매체의 콘텐츠 생산양식은 해당 매체체계의 다른 사회체계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기적 이용은 그 매체체계에 대한 개인적 의존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Defleur & Ball-Rokeach (1975)은 매체 영향력의 궁극적 토대는 거시적 사회체계, 사회체계 내 매체의 기능, 수용자의 매체 의존 간 삼각관계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체 체계 의존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전체 매체 체계가 그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복잡한 산업사회나 후기산업사회에서 매체 체계는 메시지의 확산이나 정보의 제공측면에서 강력하고 거시적 매체 의존현상을 제공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매체는 정치적 활동, 경제적 활동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과정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미시적 매체 의존, 또한 개인 매체 의존 이론은 수용자와 특정 매체의 명확한 의존 상관관계를 경험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며 매체 이용 동기인 사회에 대한 이해, 적응, 놀이에 관한 동기적인 욕구를 개념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해준다(Ball-Rokeach, Defleur, 1989). 수용자들이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화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적응(orientation)이란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고자하는 개인들의 욕구를 말하며 놀이를 통해서 수용자들은 긴장완화와 탈출 이라는 가치 있는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Skumanich, Kintsfath -er, 1998).

매체 의존 이론은 수용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이에 다중매체를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자원에 접근한다고 본다. 어떤 매체가 수용자들에게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유용한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매체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적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볼로키치 등은 개인적 매체 의존을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매체체계가 제공하는 정보자원에 의하여 제약 받는 관계" (Ball-Rokeach et al., 1984, 3)로 정의한다. 이 이론은 매체를 수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하며 또 매체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이용과 충족이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의 기본가정과 마찬가지로 개개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매체 의존이론 모델에 의하면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이해, 적응력, 그리고 놀기가 세 가지 중요한 매체 이용 동기이며 선별적으로 특정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수용자들은 그들의 욕구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매체의 메시지와 콘텐츠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Ball-Rokeach, Defleur, 1976).

볼로키치와 드폴로(1989)에 의하면 정보의 원천으로서 미디어의 의존도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매체의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믿음,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 매체 체계-사회 체계-수용자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체 의존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조건은 (1)사회의 변동, 갈등, 그리고 불안정 정도와 (2) 정보의 원천으로서 매체의 중요도이다(McQuail, Windahl, 1993). 즉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

는 상황에서 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체가 한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 있어 매체의 의존도가 커진다(Ball-Rokeach, Loges, 1996).

매체 의존이론에서 매체는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향을 가져다준다(Ball-Rokeach, Defleur, 1989). 첫째, 매체의 인지적 기능은 (1) 불확실성의 감소기능; (2) 태도의 형성기능; (3) 의제설정기능-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할 거리나 주제를 매체가 선택하는 것; (4) 신념의 확대나 변화기능- 매체가 다른 사회구성원들이나 장소, 믿음,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5) 가치관의 형성과 명료화기능. 둘째, 매체의 정서적 효과는 사회구성원들의 느낌이나 감정 등을 포함한다. 사회구성원들은 매체가 보여주는 여러 이벤트에서 다른 강도의 두려움, 적대감, 좌절, 또한 그 사건에 관련된 감정들을 보여준다. 마차가지로 매체의 행동적 효과는 수용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매체의 영향으로 그 수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Ball-Rokeach, Defleur, 1989).

기존의 미디어 또한 매체 의존 연구들(Ball-Rokeach, 1985; Hirshburg, Dillman, Ball-Rokeach, 1986)은 주로 자연재해같은 비상시의 상황에서 미디어 의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접근법에서 연구해왔으며 소수의 연구들만이 개인들이 심리상태를 고려한 개인 미디어 의존 연구를 해왔다(김지영, 2003). St. Helens의 연구에 의해 산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났을 때 사회체계의 한 시스템으로서 매체가 주요 정보원이었으며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매체에 의존하는 주장을 밝혀냈다. 그 밖에 다른 연구 또한 자연재해나 주변 환경에서 위협을 지각할 때 신문, 라디오,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 등 매체 체계 의존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oges, 1994).

또한 밀러와 리즈(Miller, Reese, 1982)는 매체 의존이란 각종 매체 노출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이며 하나의 특정 매체나 다른 매체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매체 의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들의 연구에 의해 특정 매체에 대한 신뢰는 그 매체에 대한 노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라.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의 시청현황

(1)시청동기

루빈(Rubin, 1985)에 의하면, TV 드라마 시청 동기는 4가지 동기, 즉 현실 탐사동기, 회피동기 (긴장해소, 시간보내기), 오락동기(즐거움, 기분전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동기(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상호교류)로 구성된다고 한다. 단순히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유세경 · 고민경(2006)은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의 시청행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배우의 대한 관심 때문에 시청한다는 요인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라마 내용과 화면구성', 비폭력적/ 비선정적/ 한국적인 고유함', 정서가 맞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남(2008)의 연구결과에 의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TV드라마의 시청동기가 재미추구(33.2%), 시간보내기(11.38%), 자기 확인(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미추구는 '한국 드라마의 에 대한 호기심으로', '주변사람과의 대화를 위하여', '드라마 내용이 좋아서', '기분 좋은 휴식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주인공의 패션과 머리스타일이 좋아서'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시간보내기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별생각 없이', '시간보내기 위해서',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자기 확인은 ‘주인공에게 몰입하여’, ‘중국드라마 비슷하여’, ‘나와 비슷한 인물이 나와서’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응과 미디어수용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통해 다른 국가 정보와 가치 체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될 수 있다(김현주, 전광희, 이혜경, 1997). 다른 문화권에 포함된 이민자와 유학생들은 해당 국가 미디어를 통해 문화 적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권 정보를 이용하거나 언어를 학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될수록 문화 적응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마사 · 전범수, 201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낯선 한국문화를 익숙하게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오락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요인에는 결정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오락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해서 한국어 배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 유형어, 패션 등을 알게 되는 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 한국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오락프로그램의 재미성, 유쾌성 등의 장점이 있어서 낯선 한국 유학생활 속에서 생기는 불안감와 스트레스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시청현황

양설(2010)의 재한 중국유학생 한국 TV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진행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 의해 중국 유학생들은 보통 일주일에 1-5시간(48%) 정도를 한국 프로그램시청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사용한다. 한국 TV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시청시간은 일주일에 3~5시간(32%)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시간이상 시청하는 학생들도 24%로 나타났다. 반면 상당수의 중국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기숙사에는 TV가 없거나 언어장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16%) 유학생들이 한국 TV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다. 국가별 TV프로그램의 시청 상황은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한국의 프로그램(48%) 이고 유형으로는 드라마, 영화, 오락프로그램 등의 순이었다. 시청도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중국 유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Internet site, 44%)로, 인터넷 온라인 플레이어(Internet online player, 12%)로 한국 TV프로그램을 시청했고 결국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이상인 56%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유학생(8%)이 적은 이유는 인터넷의 유용성, 편리함 등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기숙사나 자취생활에 TV를 살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도 관련되어 있다(양설, 2010). 'Internet site'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동영상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다. 'Internet online player' 는 인터넷에 먼저 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하고, 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마사, 전범수(2012)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몰입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드라마는 정확히 중간 이상 정도에서 물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 프로그램 몰입도가 드라마보다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중국인 유학생 장르별선호도, 매체의존도와 그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 간의 관계

위에 언급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채널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의 장르선호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들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남, 2008).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 현재 한국에 유학중의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1997년에 <질투>란 한국 드라마가 중국 최초 방송된 한국드라마 선정되었다. 그 이후 한국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중국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들보다 한국드라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 관계로서 오래된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많은 문화유산을 공유하여 왔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유가사상(儒家思想)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이해능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들보다 한국드라마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으며, 그 결과 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더 열중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한 마사, 전범수(2012)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드라마 몰입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독특성, 한국 체류기간, 드라마장르선호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오락 프로그램 몰입도의 경우, 프로그램 독특성, 스타출연, 오락 장르선호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외국인 들이 한국 프로그램 소비와 선호는 장르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몰입도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 내렸다. 결론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프로그램의 선호 또는 몰입은 그들의 이용 동기와 인구 사회요인, 이외에도 기존 한국 드라마 선호도가 연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의 장르 선호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이문행, 2011) 한국 프로그램의 장르별 특성에 대한 선호도와 몰입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마사, 전범수, 2012)도 있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 위주로 그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선호도가 그들의 특정 장르 프로그램 시청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프로그램의 장르별 선호가 그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체 의존이론은 또 왜 매스미디어가 특정 상황이나 문화, 특정집단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 매체, 수용자의 3자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김진영, 2003).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학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와 또, 자국의 매스미디어를 충분히 이용하는데 제약(예를 들어, 비디오, 테이프-tapes), 언어적 제한으로 타국의 매스미디어를 제대로 이용 하는데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 가능한 미디어를 접하고 의존하고, 그 특정 상황이나 문화, 특정집단에서 매체 의존은 그들의 시청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실증적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는 미디어 의존이론을 반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용과 의존 연구결과에 의해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은 자국의 매스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없으며 또 있더라도 그 이용은 제한적이고 (김진영, 2003), 재한 중국인 유학생

들에게 주요한 어려움인 언어장벽, 생활습관, 문화차이, 한국인과의 소통방식의 차이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왕매, 나미수, 2015). 왕매와 나미수(2015)는 인터넷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범과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언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이 타지의 유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적은 인터넷 쇼핑이 애용되거나 타지의 유학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거리가 먼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조용완과 이수상(2010)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지역 7개 대학 202명의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 전체 응답자의 94%가 개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하루 3~4시간이상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유학생 역시80%에 달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강한 인터넷 의존현상을 보인다는 김진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정보추구, 학습, 여가, 경제활동, 타인관계 등 유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선현 연구들에 의해 그들이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그들의 여가나 학습적인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고 유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존도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맞춰서 인터넷을 선정해서 인터넷 의존도가 그들의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국매체에 의존하여 한국과 관련

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현지 적응측면이나 매체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미디어를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중에서 텔레비전은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매스미디어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문화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주연 · 등야정, 2013). 텔레비전은 수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실을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asswell.,1948; 박주연 · 등야정, 2013, 재인용). 또한 텔레비전 방송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이질성 극복과 다원성 조화라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루빈(1984)에 의하면, 텔레비전에 대한 높은 친밀성과 의존도를 보인 시청자일수록 '시간 때우기 혹은 쉬기 위해서' 등의 이유 때문에 TV드라마를 많이 시청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매체와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신매체인 인터넷 매체를 선정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매체에 대한 의존도로 삼는다.

2.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란 한마디로 개인의 이상적인 미에 대

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홍금희, 2008).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은 특정 사기의 미적 기준에 따라 당시의 사회적인 요구에 맞도록 변화되어왔다. 최근 사회에서 외모는 취업,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단서로 인식되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 다이어트, 몸 만들기 운동 등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위은하, 2014). TV, 인터넷, 신문, 광고 등의 미디어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에 나타난 이상적인 미는 내면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문화적 압력이 되어 그 기준에 도달되지 못 할 경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섭식장애나 혹은 폭식, 운동 중독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의식하게 만들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삶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Heinberg et al, 1995; Thompson & Heinberg,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Heinberg et al.(1995)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정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SATAQ는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awareness)요인과 그와 같은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요인, 두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두 요인은 실증적 연구에서 모두 신체불만족와 자아존중감 와 관련이 되었다(홍금희, 2006).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외모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 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내면화 되면 될수록 자아 존중감 등 자아 인식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선 오경자(2003)는

Heinberg et al.(1995)의 SATAQ 척도를 한국 상황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역시 내면화와 인식의 주요인 구조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다룬 문헌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많이 받고 외모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연구(김윤, 2007)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도 외모에 대한 대상화(objectification)가 높은 남성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홍금희, 2008). 조선명 · 고애란(2001)가 청년기 여성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청년기 여성들은 매스미디어에 비춰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에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열중하는 인지적, 행동적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수경과 고애란(200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중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의복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이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밝혔다.

나. 신체상불만족

(1) 신체상과 신체상불만족

신체상에 대한 설명은 학자마다 자신의 연구차원에 따라 다양하다. Power는 신체상(Body image)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심상과 그 상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의 총합이라는 의미라고 정의했다(Power et all., 1987). Freud (1961)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아를 신체자아라고

하였으며, 신체의 지각과 개념 그리고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감정을 포함하여 신체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Fisher와 Cleveland (Fisher&Cleveland, 1968: 강정주, 2000, 재인용)는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태도에 중점을 두는 심리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Horowitz(1970)는 신체상은 신체와 주요 환경에 대한 정보의 특수화된 내적, 자율중추로서 내적이고, 외적인 지각, 기억, 정서인식 및 활동과 계속적인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Secord와 Jourard(1953)는 신체상을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 각 신체부분과 기능에 대해 느끼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Jasmin과 Trygstad(Jasmin, S., & Trygstad, L. N.,1979): 강정주 , 2000, 재인용)는 개인마다 각자 다른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상에는 자신의 신체크기와 기능 및 잠재력 등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신체상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상을 설명하는 모델에 포함되는 차원들은 학자마다 다양한데, 이런 연구들 간의 방법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교적 두 개의 독립적인 신체상 즉, 신체지각(body percept)과 태도적인 신체상 즉, '신체 개념(body concept))'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정희순, 김태련, 2006). 지각적인 신체상은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이며; 태도적인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평가, 행위 등을 의미한다.

'신체상 불만족' 이란 용어는 Cash(2004)가 외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또는 사회적 '사실' 보다 심리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신체상을 신체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시각으로 봤다(서민정 · 손정락, 201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Cash(2004)의 견해

를 바탕으로 신체상을 '신체 각 부분 및 체중 등을 포함하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주관적인 심상' 으로 정의하였고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신체상 간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신체불만족을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외모평가 하위 척도와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신체부분 만족 하위척도를 사용해서 신체불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설문지를 만들었다.

(2) 신체상의 영향요인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리, 신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적 요인, 질병이나 외상 경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 신체적 요인으로 보면 아동기 때 급속한 신체변화는 신체상의 영역에서 스트레스와 혼란을 발생시키고 신체적 성숙기는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신체적인 성숙도가 자기 연령 집단에 비해 훨씬 월등한 경우에 신체상에 심각한 손상을 갖게 된다(Blyth, Simmons, Zakin, 1985). 가족의 요인으로 볼 때 부모나 가족도 신체상 형성에 강력한 극적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영향은 학령 전기와 학령기를 통해 신체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Fujita, 1972). Schilder(1975)에 따르면 부모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모델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들은 자녀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배우는데 있어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체형이나 체중에 관심이 많고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정의 자녀는 이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Rozin & Fallon, 1988). 또한 칭찬이나 승인 등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신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와의 경험에 따라 신체에 대해 좋고 깨끗하다거나 사랑스럽다고 생각

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Norris, 1978). 또한 질병이나 외상경험도 신체상에 미치는 요인이다. 질병, 수술, 사고 등으로 신체상은 파괴되고 계속적인 증상이 수반되는 질병이나 자국이 신체상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 가운데 또한 최근 들어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중 대중매체가 신체관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그 수용 대상 과 파급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향력 또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크다고 하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신념체계와 가치들은 특히 매스컴(TV, 영화, 잡지, 신문,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며 그 정도는 다른 어떤 전달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강정주, 2001).

신체 이미지에 대한 텔레비전 내용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몸매의 등장인물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Wiseman, Gray, Mosimann, & Ahrens, 1990; Spitzer, Henderson & Zivian, 1999: 우형진, 2008, 재인용).

또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있는데 객체화된 신체의식이란 마치 외부관찰자가 관찰하듯이 자기 신체를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보는 것으로, 이상적 신체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대중매체의 이상적 기준에 맞추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Gim, Ryu, & Park(2007). 대중매체가 이상적으로 보는 체형과 자신의 체형을 비교하면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게 되며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Moon, 2003).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강할수록 신체상에서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이상적인 신체와의 괴리감이 커져 (Jung & Forbes,2007)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수용과 파급이 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한다(장희순, 김태련, 2006). 젊은 사람들은 다중 매체를 통해 자신을 측정하고 비추어보는 표준들은 배우나 모델이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배우나 모델을 이상형으로 선호하며 그들의 신체이미지가 자신의 체형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즉 개인의 이상적인 미(美)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Richins, 1991).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평범하거나 못 생긴 여자나 남자보다 수입이 더 많고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얼짱' ,' 몸짱' 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자아존중감이다. 신체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이며 지각된 운동역량, 체중, 신체매력, 신체상태 등 같은 구성요소에 관련되어 있고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Franzoi & Shields, 1984). 신체불만족은 전체적인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있다(Loweryet al., 2005). Pelletier, Dion과 Levesque (2004)는 자기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적게 지각하고, 날씬함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폭식증상도 더 적게 보고한다고 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나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서 의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자아존종감

(1) 자아존중감의 정의

자아존중감 [自我尊重感 , self-esteem]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자아 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자아 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 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2]. 자아존중감란 용어는 William James(1890)가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가치감은 가정된 잠재력에 비하여 실제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 된다' 고 밝히며 최초로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Baumeuste(1994)은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가치와 자기수용 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써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해 스스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적 감정적 태도로서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가치관의 판단이나 정도를 나타낸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65). Well, Marwelld은 자기존중감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기가치, 자아이상을 포함한 자기존중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용어를 제시했고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Frank, Marolla(1975)는 자아존중감

2) [네이버 지식백과] 자아 존중감 [自我 尊重感, self-esteem]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을 외부와 내부 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하였다. 외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반영된 평가, 내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의 개인 스스로의 능력 평가이다(박재현, 1990).) 자아존중감은 자아(self)와 타인(other)의 두 근원에서 유래되는데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여부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Shruger, 1972).

이상과 같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혹은 무가치한 인간으로 여기는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인식이 더 긍정적이고 곤란을 대처할 때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높인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아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곤란을 대처할 때 더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삶의 행복감 및 만족감을 더 높이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이 학업성취 목적으로 새로운 대학 환경에 와서 공부하며 여러 가지 곤란 상황을 만날 수 있기에 긍정적인 자이인식이, 즉 자신감과 자아안정감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기에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심리요소의 하나로서 주변의 사람의 언행, 생활환경 등 영향을 받고 있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종종 있다. Colarross, Eccles(2003)의 선생님과 친구가 청소년

들의 정신적 후원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선생님과 친구의 정신적 후원(예를 들어 그들의 대한 관심, 그들의 관점을 들어주기, 도움이 주기 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부모님의 후원보다 현저히 높다.

자아존중감은 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주변 환경이 개인을 수용하고 지지할 때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행복도와 생활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학업성적·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의 결정적 지수가 되기도 한다(이선희, 2008).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직면하는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을 보인다(Coopersmith, 1967).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업수행과 학업수행의 지속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학업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서도 사회적 회피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연구(Geist & Boreski, 1982)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이나 신체이미지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 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Secord, Jourd(1953)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자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체외모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도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에 대해 만족하여 외모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고, 반면에 신체외모에 불만족하면 자아존중감도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에 대해 불만족하여 외모에 대한 불만족도 낮아진다고 하였다.

Mahoney, Finch(1976)의 연구에 의해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아존중감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Aune(1994)도 신체의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의 가장 주요한 예측변수로 간주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self)와 타인(other)의 두 근원에서 유래되는데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여부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Shruger, 1972)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형성되므로 중요한 타인의 평가가 반영되고 개인에게 행동, 통제를 영향을 미친다. 자아준중감은 중요한 타인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특히 가족, 친구들의 지지, 사회생활 중에의 참여 등은 높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Stuart ,1978).

연구자 Nelson(2003)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에서 문화권마다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데, 이 역시 아동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론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해, 아동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동이 자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건대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강한 아시아권 문화와 그렇지 않은 북미 문화권의 아이들이 자아존중감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wenge & Crocker, 2002).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 분위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북미 아이들보다 훨씬 낮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장희순, 김태련, 2006)에 따라 마른 여성이 등장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괴리가 커져 자아 존중감이 저하된 반면, 뚱뚱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시청한 집단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어, 즉 미디어 노출이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불만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미디어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간의 관계에 대해 홍금희(2008)는 그의 연구에서 미디어 노출 정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이상적인 외모 이미지가 개인의 미의식으로 내면화되며, 그 결과 외모지향성 행동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한다. 대중매체로 표현되는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사회적 기준으로 내면화 되도 있으며, 개인의 외모에 집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이정순, 한경희, 2008).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는 결국 개인의 신체 및 외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와 신체상불만족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른 외모를 강도하는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된 여성일수록 신체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인 타인의 이미지를 접한 후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Groesz, Lcvinc& Murncn, 2002). 또한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김재숙, 이미숙, 2001), 매스미디어 노출도가 높거나 관심이 클수록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커짐을 알 수 있다(신미영, 1997).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을수록, 텔레비전 시청량과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에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밟혀졌다(이미숙, 2000).

전체적으로 말하면,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수용자들은 현실과 이상적 외모이미지 사이에 괴리감이 크며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Hcinbcrg & Thompson(1992)의 선현연구에 의해 미디어는 외모와 자아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미디어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회적 비교과정을 거쳐 개인의 외모지각과 자아를 현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경우 신체만족도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신체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다. 즉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내면화 되면 될수록 자아존중감 같은 자아인식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노출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과 자아인식의 관계에 대한 위의 연구에 따라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개인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높은 신체상 지각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임승현, 남인수,2008),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한상숙, 김경미, 2006),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수정, 손정락, 2002; 신혜숙, 백승남, 2003). 이계원(1993)은 청소년의 신체상이 자기만족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경희(1991)는 연령에 따라 신체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면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신체상 불만족 할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신체상불만족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지숙(1992)은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체상 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청소년기의 신체상 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은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불만족한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대상들이 신체상의 불일치를 나타냈으며(이규은, 김은주, 염영희, 2005; 황란희 2009), 신체상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높은 관계가 있었다(강지숙, 김예영, 김미영, 정덕유, 2009). 또한 신체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이며 지각된 운동역량, 신체적 상태, 매력및 체중문제와 같은 구성요소에 관련되어 있고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Franzoi & Shields, 1984), 신체상불만족은 전체적인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있다(Loweryet al., 2005).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의 높은 상관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과 관계가 유의미 하다고 판단했다.

III.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작용하며 그들의 신체상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준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 매체의존도가 그들의 장르별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가설 1-1: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시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중국인 유학생들의 매체의존도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시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문제 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가설 2-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4: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신체상 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5: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6: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16년 5월10일부터 2016년 5월20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부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총23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에 불성실하게 답했거나 가입항목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201명의 유효응답을 최종적으로 표본데이터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시청자 일반적 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재한시간, 언어(한국어)' 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성별은 '남성-여성' 으로 구성된 명명 척도를 이용하였고, 둘째 연령은 '귀하 의 연령은 ( ) 세?' 라는 설문에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학력은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이상' 으로 이루어진 명명척도를 활용하였다. 넷째, 제

한시간은 ‘6개월 미만~ 3년 이상’ 등 6등간으로 이루어진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섯째, 정공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어학연수의 경우)’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언어능력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시청자의 한국어능력(TOPIK) 등급은 ‘1급-6급’ 6등간으로 이루어진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6급은 한국어능력이 최고급이다).

나. 장르별 선호도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선호도를 도출하기 위해 ①뉴스, 시사보도, ② 드라마, ③영화, ④오락 프로그램(코미디/시트콤, 예능, 쇼), ⑤교양 프로그램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프로그램 장르기준과 결과는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04)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드라마, 뉴스, 쇼/오락, 스포츠, 영화, 토크쇼, 다큐멘터리 7개 장르를 나눈다. 이를 이용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알맞은 이상 5개 프로그램 유형을 정했다. 각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5점을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르별 선호도가 높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장르별 선호현황을 도출했다.

다. 매체의존도

매체의존도를 척정하기 위해 경험적 매체 의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인적

매체 의존 척도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Grant(1996)가 수정, 개발한 텔레비전 의존도 측정 문항들 하고 Sun et al.(2007)가 개발한 인터넷 의존도 측정척도를 이용하였다. 통상 매체 의존 척도는 이해, 정향, 유희 세 차원 각각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차원에 2-3개씩의 문항을 배정했다. 변형된 매체 의존 척도는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 사회에 대한 이해, 행동 정향, 상호작용 정향, 개인적 유희(solitary-play), 및 사회적 유희와 같은 여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란트, 거쓰리, 그리고 볼-로키치(Grant, Guthrie, Ball-Rokeach, 1991)은 이 같은 여섯개 차원 모두를 사용하여 매체 의존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뢰도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응답자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각각 표<1>에 제시된 10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였다(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도움이 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도움이 된다, 5=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매체의존도는 20개 문항 응답의 평균치로 계산했고 신뢰도 Cronbach 알파가 .89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 매체 의존도 측정 문항

의존도 차원	문항
자기이해	1. 나이가 들면서 나의 미래가 어떨지를 상상하는데
	2.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3. 다른 사람들이 내 것과 유사한 문제 또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하는데
사회에 대한 이해	4. 내가 사는 지역의 최근 소식을 접하는데
	5.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6. 세계의 뉴스를 계속하여 접하는데
행동 정향	7. 쇼핑, 재테크,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내 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호작용 정향	8.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개인적 유회	9.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데
사회적 유회	10. 다른 사람들과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라. 시청량

학생으로서 평일과 주말에 여유시간 따르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뉴스시사보도, 드라마, 영화, 오락, 교양)시청시간을 각각 질문하여 일주일 평균 시청량을 조사를 진행했다. ” 당신은 평일/주말에 ①한국 뉴스시사보도 / ②한국 드라마 / ③한국 영화 / ④한국 오락프로그램 / ⑤한국 교양프로그램의 시청시간은( )분?” 각각 설문을 만들었고,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장르별 프로그램 일주일 평균 시청량을 도출하였다.

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는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개발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SATAQ)를 토대로 문항들을 선정하였으며 홍금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측정문항들 재구성하여 10개 문항들을 사용했다. 이 10개 문항들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 3점, '그렇다' -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 5점)로 척정하였다. 측정문항들은 아래(표<2>)와 같다. 문항들 간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가 .823으로 신뢰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 문항

요인	문항
내면화 요인	1.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2.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3.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4. 나는 패션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5.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인식 요인	1.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의 매력이 매우 중요하다.
	2.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3. 현대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하는데 중요하다.
	4. 나는 의복이 마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5.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보기 좋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바. 신체상불만족

본 눈문에서 헤더톤과 폴리비(Heatherton & Polivy, 1991)가 명명한 신체존중감 측정문항들과 홍종필, 이시연(2005) 가 박은아(2001)와 신미영(1995)의 논문에서 신체 각 부분의 신체 불만족을 측정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실증연구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던 10개 문항을 인용하였다. 이에 10개 문항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 3점, ‘그렇다’ –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 5점)로 측정하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6번, 8번, 10번 문항은 긍정적 문항이기 때문에 역으로 개산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가 .849으로 신뢰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 불만족 측정 문항들은 아래(표<3>)와 같다.

<표3> 신체상 불만족 측정 문항

문항
1. 내 얼굴은 너무 큰 것 같다.
2. 내 엉덩이 너무 큰 것 같다.
3. 내 허벅지는 너무 굵은 것 같다.
4. 내 허리는 너무 굵은 것 같다.
5. 내 팔뚝은 너무 굵은 것 같다.
6. 나는 현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신체에 만족감을 느낀다.
7. 나는 현재의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8. 지금 나는 내 외모가 만족스럽다.
9.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10. 지금 나는 내 모습이 괜찮게 느껴진다.

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도임하여 측정하겠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의 측정에 널리 쓰이는 리커트 척도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다섯 개의 항목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항목은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다름 사람들만큼 일 잘 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다 등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고 부정적인 항목은 ①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②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③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④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⑤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다섯 문항으로 구성한다. 이 척도는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10문항의 총 점수는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가 .834으로 신뢰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설문 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유효응답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표4>), 성별로는 남자(62명, 30.8%)와 여자(139명, 69.2%)로 이루었고 그중에 어학원 이수중인 중국인 42명, 일반 대학교 이수중인 중국인 89명, 대학원 이수중인 중국인 70명으로 이루었다. 연령별로는 20대(90.7%) 응답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한 시간은 3년 이상(34.8%), 한국어실력은 TOPIK 4급 및 5급(45.4%), 전공은 인문사회(42.7%)으로 제일 높은 비율로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응답자들 한국어실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 20대 인문사회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각 변인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살펴보려고 변이 신뢰도를 분석하는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장르선호도 및 매체의존도가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 간 상관관계와 유의도 검정방법인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하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했다.

<표4> 표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62	30.8
	여자	139	69.2
나이	20세 미만	12	6
	20~24세	94	46.7
	25~29세	88	43.8
	30세 이상	7	3.5
학습단계	어학원	42	20.9
	학부	89	44.3
	대학원 및 이상	70	34.8
재한시간	6개원미만	33	16.4
	6개월~1년 미만	32	15.9
	1년~1년6개월 미만	14	7
	1년6개월~2년 미만	16	8
	2년 ~ 3년 미만	22	10.9
	3년 이상	84	41.8
전공	인문사회계열	89	44.3
	자연공학계열	23	11.4
	예체능계열	7	3.5
	기타	82	40.8
한국어 능력	TOPIK 1급	29	14.4
	TOPIK 2급	22	10.9
	TOPIK 3급	28	13.9
	TOPIK 4급	49	24.4
	TOPIK 5급	43	21.4
	TOPIK 6급	30	14.9

V. 연구결과

1. 기술 통계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술통계량에 대하여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선호도은 각각 한국 뉴스, 시사보도가 2.92, 한국 드라마가 3.75, 한국 영화가 3.75, 한국 오락 프로그램이 3.89, 한국 교양 프로그램이 3.02이다. 이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선호도상황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제일 높고 그다음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다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의존도가 3.34, 텔레비전매체의존도가 3.98이기에 텔레비전이 여전히 유학생들에게 높은 의존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준다.

시청량의 상황은 한국 드라마(70.1분/하루 평균), 오락프로그램(64.7분/하루 평균)순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량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3.32, 신체상불만족이 3.09, 자아존중감이 3.54로 나타났다.

<표5>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 뉴스, 시사보도 선호도	201	1	5	2.92	0.717
한국 드라마 선호도	201	1	5	3.75	0.878
한국 영화 선호도	201	1	5	3.75	0.855
한국 오락 프로그램 선호도	201	1	5	3.89	0.95
한국 교양 프로그램 선호도	201	1	5	3.02	0.806
장르선호도	201	1	5	3.46	0.564
인터넷매체의존도	201	2	5	3.34	0.608
텔레비전매체의존도	201	2	5	3.98	0.549
한국 뉴스, 시사보도 시청량/하루 평균	201	0	90	10.07	14.14
한국 드라마 시청량/하루 평균	201	0	420	70.83	76.24
한국 영화 시청량/ 하루 평균	201	0	480	50.82	62.10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하루 평균	201	0	480	64.75	65.65
한국 교양 프로그램 시청량/ 하루 평균	201	0	90	8.14	14.8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201	1	5	3.32	0.625
신체상불만족	201	2	5	3.09	0.517
자아존중감	201	1	5	3.54	0.531

2. 신뢰도 분석

<표6> 신뢰도 분석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장르선호도	0.69	5
인터넷매체의존도	0.884	10
텔레비전매체의존도	0.873	10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0.776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0.823	10
신체상불만족	0.849	10
자아존중감	0.834	10

<표6> 와 같이 신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르선호도가 0.69, 인터넷매체의존도가 0.884, 텔레비전매체의존도가 0.873,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0.77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0.823, 신체상불만족이 0.849, 자아존중감이 0.834로 나타났다. 각 변인을 측정에 사용한 항목들을 신뢰할 만한다고 볼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척도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r)이며, 본 연구에서도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 r은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즉 측정된 자료가 좌표상에 정(positive, +)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그때의 상관계수는 정(+)이고, 음(negative, −)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깝다면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관관계는 0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각 이론변수들의 관계성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 매체의존도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불만족, 자아존중감의 각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도를 알아보면 위에 (<표7>)와 같다.

<표7>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 매체의존도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불만족,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과 장르선호도의 상관관계가 r=.343(**)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과 텔레비전매체의존도의 상관관계가 r=.145(*)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량의 상관관계가 r=360(**)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상불만족과 한국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의 상관관계가 r=.243(**)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표7>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장르선호도	인터넷매체의존도	텔레비전매체의존도	한국드라마오락프로그램시청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 불만족	자아존중감
장르선호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N	201						
인터넷매체의존도	Pearson 상관계수	.318(**)	1					
	유의확률 (양쪽)	0						
	N	201	201					
텔레비전매체의존도	Pearson 상관계수	.325(**)	.407(**)	1				
	유의확률 (양쪽)	0	0					
	N	201	201	201				
한국드라마오락프로그램시청량	Pearson 상관계수	**.343(**)**	0.119	**.145(*)**	1			
	유의확률 (양쪽)	0	0.093	0.04				
	N	201	201	201	201			
외모에대한 사회문화적태도	Pearson 상관계수	.271(**)	.142(*)	.353(**)	**.360(**)**	1		
	유의확률 (양쪽)	0	0.045	0	0			
	N	201	201	201	201	201		
신체상불만족	Pearson 상관계수	0.017	−0.048	0.09	**.243(**)**	**.550(**)**	1	
	유의확률 (양쪽)	0.811	0.502	0.203	0	0		
	N	201	201	201	201	201	201	
자아존중감	Pearson 상관계수	0.105	0.121	0.134	−0.101	**−.274(**)**	**−.382(**)**	1
	유의확률 (양쪽)	0.139	0.088	0.058	0.152	0	0	
	N	201	201	201	201	201	201	201

*p<.05, *p<.01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상불만족의 상관관계가 r=.550(***)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상관관계가 r=-.274(**) 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불만족의 상관관계가 r=-.382(**) 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 검정

가설 1-1: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8>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81	0.424		0.898	0.37	14.502***	.000	0.271
한국 뉴스, 사보도	-0.105	0.097	-0.069	-1.08	0.282			
한국 드라마	0.351	0.099	0.286	3.54***	0.001			
한국 영화	-0.063	0.103	-0.05	-0.612	0.541			
한국 오락 프로그램	0.395	0.09	0.347	4.407***	0			
한국 교양 프로그램	-0.147	0.088	-0.11	-1.662	0.098			

***p<.001

<표9>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전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03	0.447		−0.067	0.947	26.557***	.000	0.118
장르선호도	0.657	0.127	0.343	5.153***	0			

***p<.001

<표8>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7.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4.502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드라마, 한국 오락 프로그램 선호도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9>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체 장르선호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1.8%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6.557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르선호도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의 장르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설 1-2: 중국인 유학생들의 매체의존도가 그들의 장르별(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0> 인터넷 및 텔레비전 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915	0.593		1.542	0.125	2.563	.080	0.025
인터넷매체의존도	0.127	0.136	0.072	0.932	0.353			
텔레비전매체의존도	0.228	0.151	0.116	1.505	0.134			

p<.05*

<표11> 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08	32.816		0.003	0.997	4.329 *	.039	0.021
매체의존도	18.490	8.887	0.146	2.081 **	0.39			

p<.05*

<표10>, <표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텔레비전의존도 및 인터넷의존도가 각각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5%를 설명하고 있

으며 F값은 2.563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 매체의존도(텔레비전 및 인터넷)가 그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에 유의미한 약한 2.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매체의존도, 텔레비전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2>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849	0.096		29.829	0	14.796***	.000	0.142
드라마 시청량	0.093	0.036	0.190	2.583	0.011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0.116	0.036	0.235	3.186	0.002			

*p<.05, ***p<.001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4.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4.796***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량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전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849	0.095		29.9	0	29.575***	.000	0.129
한국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량	0.208	0.038	0.36	5.438***	0			

***p<.001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2.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9.575***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드라마 오락프로그램 시청량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4>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43	0.100		27.507	0	7.531***	.001	0.071
드라마시청량	0.066	0.037	0.134	1.759	0.80			
오락프로그램 시청량	0.089	0.038	0.179	2.350	0.02			

*p<.05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7.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531***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유의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많을수록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을 것이다.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5.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2.532***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전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26	0.082		34.472	0	12.532***	.000	0.059
한국드라마오락프로그램시청량	0.117	0.033	0.243	3.54***	0			

***p<.001

가설 2-3: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6>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47	0.056		64.826	0	1.984	.140	0.020
드라마 시청량	0.005	0.001	0.014	0.170	0.974			
오락프로그램 시청량	-0.01	0.001	-0.147	-1.803	0.014			

*p<.05

<표17>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전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51	0.086		42.284	0	2.069	.152	0.01
한국드라마오락프로그램시청량	-0.05	0.035	-0.101	-1.439	0.152			

*p<.05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0%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98로 유의수준 p>0.1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5.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069로 유의수준 p>.15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준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4: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79	0.165		9.548	0	86.136***	.000	0.302
외모에대한사회문화적태도	0.455	0.049	0.55	9.281***	0			

***p<.001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30.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86.136***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5: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7.5%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6.129***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R 제곱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311	0.196		22.047	0	16.129***	.000	0.075
외모에대한사회문화적태도	-0.233	0.058	-0.274	-4.016***	0			

***p<.001

가설 2-6: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가 자아존중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20> 신체상불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728	0.167		28.255	0	52.528***	.000	0.209
신체상불만족	-0.384	0.053	-0.457	-7.248***	0			

***p<.001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20.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2.528***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을 평일하고 주말에 하루 평균시청시간을 질문으로 통해 하루 편균 시청시간을 산출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프로그램 장르선호도, 매체의존도(텔레비전 및 인터넷)가 그들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불만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한국 뉴스, 시사보도, 영화, 교양 프로그램 선호도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장르선호도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체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선호도(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가 높을수록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매체의존도, 텔레비전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량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각각 그들의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한국 드라마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 많을수록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의 전체 시청량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준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상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고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많이 내면화 되면 될수록 자신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 자아인식의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높을수록 높은 신체상 불만족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에서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가설을 인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상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체상불만족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신체에 대한 신체상불만족 할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신체상불만족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한 지역에서만 표집됨으로서 조사대상자가 전 중국인 유학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부산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런 취약점을 극복해 최대한 많은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남준, 조성동 (2007). 다채널 시대 시청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7,5(4), 7-45.

강정주 (2001).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와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애란, 이수경(2001).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자기존중감의 형성 : 비교문화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2005.6, 104-105.

김남두, 강재원 (2012). 매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56(4), 236-264.

김선남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TV드라마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언론 과학연구, 제8권 2호(2008.6), 122~128pp.

김선남(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 치 · 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pp.185-206, 2007.

김은미, 윤석민 (2003). 방송의 다채널화가 수용자의 매체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003, 17(2), 45-80.

김윤 (2007). 사회문화적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영 (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언론과학연구, 3(2),119-154.

김주연, 안경모 (2002).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행동과 K-pop으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516-524, 2012.

김현주, 전광희, 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40, 1997.4, 105-139.

노혜정, 김은이 (2011).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남자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5), 340-365.

마사 (2012). 중국 유학생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몰입 결정 요인.한양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012.6, 111-119.

박신영 (2010).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자의 성향이 이용 동기, 장르 선호도 및 드라마 몰입정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0(1), 166-201.

박주연, 등야정 (2013).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58권0호. 2013, pp.20-40.

박현회 (1997).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경험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경호 (2008). 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참여유형 및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 공석사학위논문.

서민정, 손정락 (2015).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가 대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신체불만족 및 신체상의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47-566.

성신진 (1996).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DM370.18-성173ㄱ=2).

양설 (2010). 재한(在韓) 중국유학생 한국 TV 오락 프로그램 유형별 진행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

구> 14권0호 (2010), pp.167-184.
양문희 (2011). 개인성향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선호도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11(12), 230-240.
염영희, 이규은(2011). 대학생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지 18(4), 2011.11, 452-462.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회지, 15(2), pp.278-286.
우형진 (2008).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4호, 2008, pp.480~513.
육영숙 (2008). 여대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pp.105-115.
이경희 (1991).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문행 (2011).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의 특성,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167-175.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리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913-926.
이지원 (2013).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모델과 일반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호준, 최명일 (2006). 라디오 청취동기의 요인구조와 측정척도의 개발. 방송연구 겨울호, 153~178.
임정수 (2003). 인터넷 이용패턴에 대한 연구-채널 레퍼토리 형성과 수용자 집중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47(4), 2003.4, 282-305.
임현민, 박주연 (2011). 한류 콘텐츠인 드라마 시청 동기와 문화 선호도에

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27(4), 371-395.
왕방 (2013).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국희도서관(청구기호 362.7-13-139).
왕매, 나미수 (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1),77-98.
위은하 (201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비교,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태도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2014.11, 176-177.
장희순, 김태련 (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2006.12, 57-83.
조성동, 김규찬, 강남준 (2010). 다매체 수용자의 장르 선호와 장르 이용에 따른 정치사회적 영향에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362-386.
조용완, 이수상(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44(1), 75-99.
조성동, 강남준 (2009). 다매체 환경 정착에 따른 수용자들의 매체이용 특성변화와 이용매체 구성변화. 한국언론학보, 53(1), 233-256.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혜택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25권 7호. 2001 pp.1227-1238.
조정환, 송금주(2002). 신체상(bady image) 검사지의 구인 타당화. 한국체육측정가학회지. 제4권 1호. 2002. 31-46.
주창윤 (2004).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105-136.
한광훈, 박봉수 (2012). 국내 유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증연구. 문화교

류연구 , 1(1), 157-179.

허경호(2009). 대학생의 인터넷 의존도의 이용과 충족 시각적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6(4), 195-233.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348~357.

홍종필, 이시연 (2005). 잡지 속의 신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의 기분과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젠더&문화, (4), 72-118.

황성연 (2005). 시청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644-689.

Adams GR(1997). Physical attactivenss research ;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 Dev 20, 217-239.

Ball-Rokeach, S., & DeFleur, M.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 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 3-21.

Ball-Rokeach, S.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4, 485-510.

Berscheid E., Dion KK, Walster E, Walster G (1997). Physical attactivenss and ating choice. A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173-180.

Brooks-Gunn, J. B., & Warren, M. P. (1985). Effects of delayed Menarche in different context: Dance and nondancer students.

Blyth, D. A., Simmons R. G., & Zakin, D. F. (1985).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for Early Adolescent Females: The Impact of Pubertal Timing Withen Different School Environm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07-225.

Clifford, E. (1971). Body satisfaction in adolesce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 119-125.

Dion KK, Berscheid E , Walster E(1972). What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 Social Psychology 24, 285- 290.

Davey, G. C. L., Hampton, J., Farrell, J., & David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ing and anxiety as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133-147.

Fabian, L. J., & Thompson, J. K. (1989).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Young Fema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8, 63-74.

Freud, S. (1961). The ego and id. In J. Strache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Hogarth Press.

Fujita, M. T. (1972).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the chil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7, 597-607.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Horowitz, M. (1970). Image formation and cognition. New York:

ppleton- entury.

Jeon, J., & Bae, E. J. (2007). Difference between self-esteem and family cohesiveness by university students' demographical varianc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 807-817.

Luckmann, J., & Sorensen, K. C. (1974). Medical-surgical Nursing. W.B. Sauders Company.

Moon, J. S. (2003). A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lization and the body imageof the socio-culturalattitudes according to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he appea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Nelson, K., & Fivush, R. (2004년). The emergence of aoutobiographical memory: A socia-cultural development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11, 48-511.

Norris, C. M. (1978).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 image.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J. B. Lippincott Company.

Rubin, A.M (1984). Ritualized and Instrumental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Communication, 34, 67-77.

Rowe, D. A.(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bady image. Dissertation Paper. University of Georgia.

Rozin, P., & Fallon, A. (1988). Body image, Attitude to Weight, and Misperceptions of Figure Preferences of the Opposite Sex: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Two Gener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42-345.

Skunanich, S. A., & Kintsfather, D. P. (1998). Individual media dependency relations within television shopping programing. Communication Researcb, 25(2), 200-19.

Sandra J.Ball-Rokeach and Joo-Young Jung(2004.2). From media system dependency to communication infrastructure:A review on the evolution of MSD theory andproposals for a new concept °国际新闻界 ,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编辑部邮箱 , 2004年02期.

Secord, T. E.,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43-347.

Schilder, P. (1975). Disturbance of the Body imag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Inc.

Twenge, J. M., & Crocker, J. (2002년). Race and self-esteem: meta-analyses comparing whites, blacks, Hispanics, Asians, and American Indians and comment on Gray-Little and Hafdahl (2000년).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1-408.

Webster, J. G. (2007). A marketplace of attention. Unpublished Mimeograph, University of Northwestern.

Youn, S. (1994). Program type preference and program choice in a Multi- channel Situ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8(4), 465~476.

Yuan, E. J., & Webster, J. G. (2006). Channel repertoire: Using people-meter date on Beij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0(3), 524~536.

Yim, J. S. (2002). Audience concentration in the medi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재한 중국인유학생들의 신체상 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르선호도, 매체의존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중심으로

LIU JUAN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르선호도(한국 프로그램), 매체의존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그들의 신체상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뉴스/시사보도, 영화, 교양 프로그램 선호도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선호도는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 매체의존도 및 텔레비전 매체의존도가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 나타났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오락 프로그램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한국 드라마 시청량이 신체상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량(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준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상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고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상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